

“안전사고 예방은 철저한 유비무환 태세로”

김관영 지사, 정읍 구절초 꽃축제 대비해 테마공원 출렁다리 찾아... 토목 분야 민간전문가·드론 장비 활용 합동 안전점검

이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가 위험 시설을 잇따라 찾아가 강도 높은 안전점검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2년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것이기도 하지만 평소 김 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는 강도 높고 철저한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지론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29일 전주 에코시티 내 아파트 신축공사장 현장점검에 이어 11일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인 정읍 정읍초 구절초 테마공원의 출렁다리를 찾아 안전점검 활동을 직접 펼쳤다.

김 지사는 이날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은 물론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으로 전국의 지방정원 중에서 최대 면적을 자랑하는 정원인만큼 축제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사고 예방에 정읍시장이 선제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출렁다리는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도록 고지대에 설치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시 육상의 경지 사고 보다도 인명피해가 매우 클 우려가 높다”며 “축제 기간 출렁다리를 이용하는 모든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소보다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예방대책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점검 활동에서 함께 참가한 토목 분야 민간전문가와 출렁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2년 집중안전점검 일환으로 11일 김관영 도지사가 정읍 구절초 출렁다리를 찾아 이학수 정읍시장 및 토목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점검을 갖고 축제 기간 관광객 안전 확보 위해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예방대책을 재점검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리 주케이블의 손상·부식 여부, 행어의 손상·부식 여부, 비드 프레임·데크 균열 발생 여부, 난간 지지대·와이어 손상 여부, 기타 부대시설 등 출렁다리의 전반적인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 세밀하게 중점 점검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이 어려워 육안으로 점검하지 못했던 출렁다리의 주탑 바닥판 밑부분 등은 드론 장비를 활용해 더욱 정밀한 점검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이어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해달라”며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에 그치지 말고,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

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전북도가 실시하는 2022년 집중안전점검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지자체·주민이 함께 참여해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이달 10월 14일까지 59일간 도내 1,500여 개소 시설을 점검한다. /김경수 기자

도, 자원순환 기부캠페인 전개

도청사 1층 미려된공간에서 이달 말까지 자율적기부 기부물품은 내달 8일 특별판매전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사용하지 않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는 자원 순환 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북도 아름다운가게,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하는 이번 캠페인은 한달동안 기부물 받아 다음달 8일에 특별판매전을 가질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을 기부해 버려질 수 있는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전북도는 직원들이 쉽게 참여해 많은 물품이 기부될 수 있도록 청사 1층에 전용 기부 공간을 마련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송상재

위원장은 “직원들이 물품을 기부하고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곳에 쓰이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면서 자원 순환과 탄소중립 실현, 나눔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기부된 물건은 다음달 8일 도청사 1층에서 “전북도청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라는 주제로 특별판매전을 열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별판매전은 아름다운가게가 주관하여 도청 직원들이 기부한 물건과 함께 사회적 기업 등에서 생산한 공의 제품,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 친환경 제품도 같이 판매하게 되며, 판매전 외에도 탄소중립·탄소포인트·기후변화 홍보를 위한 체류부스 운영을 통해 직원들과 도민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지역혁신사업 공모 전담반 가동

전북도는 11일 도청 회의실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모대응을 위한 전담 TF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지역인재가 지역으로의 취·창업을 통해 도내에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혁신사업(RIS) 전담반(TF)을 가동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지자체와 도내 대학, 기업 등이 전북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해 지역혁신사업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 지역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날 전담반(TF)회의는 운동목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중심으로 주력산업 관련 부서장,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지역혁신사업 핵심 특화분야 도출, 사업계획 수립 방향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경수 기자

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발대식

과기부 공모 선정, 5년간 100억규모 추진... 전북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 참여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산성 개선·탄소저감 통해 미래 과학기술 선도 '기대'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정읍시와 함께 공동으로 11일 (재)농축산유통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정읍)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경제동물 혁신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2022년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5년간 총 100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리빙랩 활용 경제동물 장내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생산성 개선 및 탄소저감 가능성 복합제제 사업화”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써, 최창석 전라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을 비롯해 과기부 권석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이학수 정읍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조용철 전북본부장, 참여 기업·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프로젝트는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함께 참여하며, 주관기관인 (재)농축산유통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를

비롯한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종자사업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공동연구개발 기관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경제동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정보관리체계 구축과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용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확보 등을 통해 경제동물의 사료투입량 절감과 사육기간 단축 및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 및 아산화질소와 같은 온실가스 발생량의 상당량을 감축하여 전 세

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실현과 동시에 농축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우진비엔지(주)와 바이오엔(주), (주)정농바이오, 혁신경영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최창석 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내 경제동물 생산성 개선 등을 통해 고부가 축산제품 생산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하며, “도내 농축산 기업들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관산업 업체들에 도움이 되는 선도기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오미크론 BA.1 기반 2가 백신을 활용, 11일부터 동절기 추가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18세 상인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120일이 지난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이용·종사자 및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한다.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vdca.go.kr>), 1339 콜센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 예약도 가능하다.

그 외 18세 이상 성인도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예비명단과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SNS 잔여백신 예약서비스(12월 16시~)를 활용해 참여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SNS를 통한 당일접종은 12월 16시 이후 가능하므로 이전 당일접종을 원하는 분들은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적극 활용해 접종할 수 있다. /김경수 기자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7조 및 같은법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242-1/ 송풍리 1658-1
2. 분묘기수: 1기
3. 개장사유: 소유권 행사
4. 개장방법
(가)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험의 개장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 산 242-1
6. 안치기간: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8. 신고처(공고인): (주)제이비피씨(010-7767-6531)
9.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를 구비하여 신고

2022년 10월 12일

공고인: (주)제이비피씨

(전북 진안군 용담면 안용로 119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